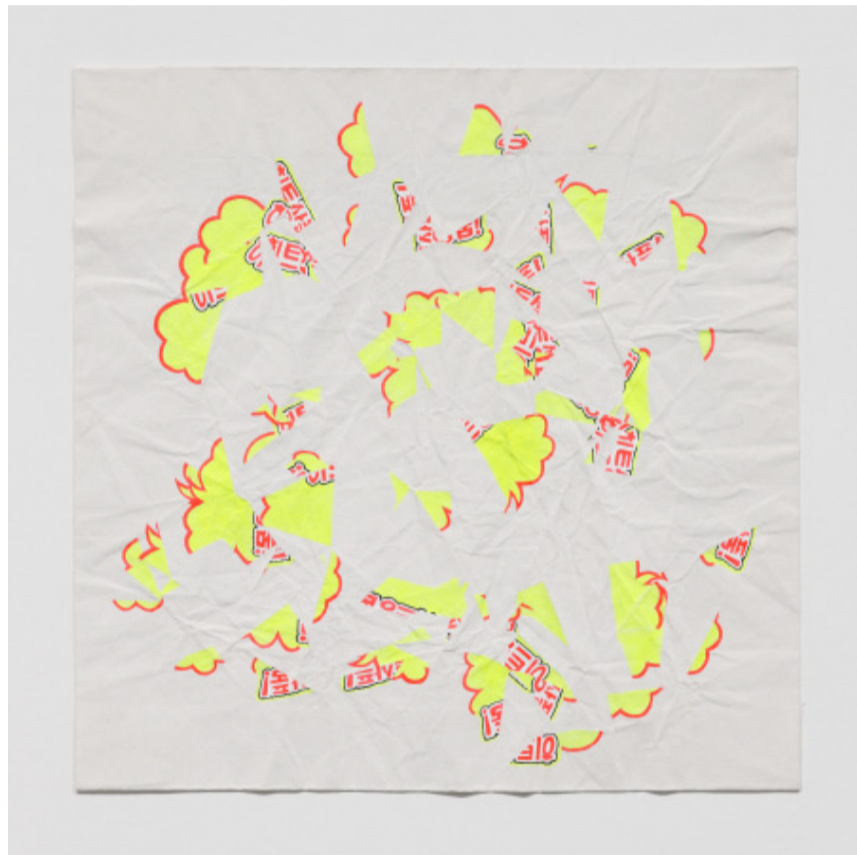


PREVIEW with INTERVIEW |

제4회 PT&Critic 천창환 개인전
Chun, Chang Hwan's solo exhibition <BURST>

전시기간 | 2014. 07. 02 수 - 07. 20 일
오프닝 리셉션 | 2014. 07. 02 수 6:00pm
PT&Critic | 2014. 07. 05 토 5:00pm (패널: 강석호, 김연용 작가)



<Fig> _광목에 아크릴_각 80 x 80(cm)_2013-2014

* 매년 신진작가를 발굴하여 기획되는 정기 프로그램 PT&Critic의 네번째 작가로서 천창환 작가의 회화를 소개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일상적인 이미지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었나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림을 또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저는 고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해보고, 주의 깊게 보도록 그림을 그리며 실험하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를 둘러싼 삶 속에서 공유되는 이미지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을 굳이 범주화하자면 대부분 광고, 공익이미지 그리고 공공표지판과 같은 실제 삶에 기반을 둔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식하는 이미지들은 무엇인가를 하게끔 유도하는 특징을 가진, 눈에 띄도록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미지는 특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한가지 맥락을 뛰어넘어 읽을 수도 있고, 즉각적인 감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채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미지를 너무 쉽게 고정적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이번 작업은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보다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미지를 보는 방식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제목 <BURST>처럼 작품 속 이미지들은 파열되고 해체됩니다.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우연의 효과를 통해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의 작업에서 시각적 결과물로서의 이미지는 의도된 우연의 과정을 통해 해체됩니다. 이는 오히려 이미지를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이미지를 대상 그 자체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대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지만, 해체해놓고 보았을 때 관객들은 그림을 보고 과연 그 대상은 나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재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정적으로 인식하던 일상의 이미지는 선이나 색과 같은 그림을 이루는 요소로 보이게 되고, 동시에 그림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의 기호로 교차하며 변화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대상을 고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대상들과 회화를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작가가 평소에 생각하는 '회화'장르에 대한 의견을 서술해 주세요.

저는 회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생각하며 그림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림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습니다. 결국은 작품을 보는 사람에게 해석하는 몫이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림 안에서 여러 가지 층위의 것들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어려운 정신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떤 환영을 그리는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리며 또다시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흥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고민해보고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림 그리기를 계속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자 인큐베이팅 2014 <새벽질주>
Curator incubating program 2014 <riding at dawn>

참여 기획자 | 김민엽, 이한범, 장지한
참여 작가 | 모하비, 문세린, 신지영, 최운
전시기간 | 2014. 07. 30 수 - 08. 23 토
리셉션 | 2014. 07. 30 수 6:00pm
기획자 토크 | 2014. 08. 01 금 6:00pm



신지영 <가로수나무 1월부터 12월까지>
종이에 수채, 연필, 콘테, 아크릴, 크레용 볼펜_30 x 23cm_2012

* 윌링엔딩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신진 기획자 인큐베이팅>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3인의 기획자 지망생이 함께 협의와 논쟁을 거쳐 만들어 낸 전시이다.

우리는 전시를 기획함에 있어서 기획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제가 없는 전시'를 만들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1년 여간 함께 공부하면서 현재 미술계와 전시 관행상의 문제점 중 전시기획 자체가 가진 한계에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기획전시를 했을 때 많은 곡해와 오해들이 생겨나고, 정작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 작품들이 제대로 감상되고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제를 개념이나 언어로 설정하지 않고,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작가들을 '매개'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자로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일종의 '에이전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시는 작가를 매개시키는 공간이며, 매개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예술 뿐 아니라 인접한 인문학적 담론들이 열려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품과 작가, 전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의 지형을 보여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들을 매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전시 제목인 '새벽질주'에서 은유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술의 체험이라는 것이 마치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을 질주하는 감각과 비슷하다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탈정체화'의 경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의 모습이자 의무입니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집단적 차원의 변화는 주체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즉 대규모의 탈정체화의 경험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지금 동시대 미술 혹은 사회현상적 경향이 삶의 미학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고, 그것은 결국 각 개인이 위치한 자리에 대한 궁극적인 수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뜨거운 문제인 예술로 먹고 사는일, 즉 예술과 노동 그리고 협업이나 콜렉티브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 <새벽질주>의 참여 작가 및 작품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시대 미술의 경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정한 작가들은 자신이 가진 예술언어의 실험에 집중하고, 사회비판이 아닌 침묵의 언어를 생산해 내며, 스스로의 위치를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작가들이 가진 이러한 태도는 관객들로부터 기존의 전시와는 다른 차원의 감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시의 기획 의도는 이들을 전시라는 형태로 보여주고, 이들의 작업을 통해 끌어내고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화의 장, 담론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기획자 세 명이 하나의 전시를 만들어 내기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위계나 알력이 있는 관계가 아니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시의 유일한 목적은 결국 복잡하고 다양한 대화상태의 장을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의 논쟁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가 갈등이거나 풀어야 할 숙제도 아니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전시를 통해 관객에게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요.